

헌정 기념

'77 6월호

◆ 총동원전투 주일의 모습!

대한여수교장모회 총현교회





성령님의 사랑

(요한복음 14: 16-20)

김 창 인 목사(당회장)

복음의 빛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성도들은 성령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알것을 아는 지혜자가 되고 악마가 손 못 대는 평안을 누리게 되며 너희는 땅 위에서부터 천국을 숨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 그 성령님은 너희들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성삼위 중 한분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몸은 살아 있으나 영은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 원체에서 떨어진 것처럼 모양은 비록 번듯하지만 잠시 후에 아궁이에 던져워질 불행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와 집을 붙여 주시 새 생명이 내 인격 속에 피와 같이 순환합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중생한 생명은 자라나갑니다.

성령님은 죄와 꾀박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중생함을 입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올바르게 취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한 영적 소경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캄캄하던 방에 빛을 비추어 자기의 주한 것을 볼 수 있는 것같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과 형제자매·친척·친구 사이에 잘못을 깨닫고, 만물에까지 손해 끼친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퍼집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를 정리해 나가거니와 요셉과 같이 유혹도 이길 힘이 생기고 꾀박을 건디는 힘까지 생기어 중생한 생명으로 점점 자라나갑니다.

성령님은 올바른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올바른 지혜가 생겨, 먼

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만물은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던 데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어 합부로 대하던 물질에 대한 마음과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천년 전에 죽으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으리라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이 몸이 귀한 것이지, 생명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격 속에서 주님 떠나가시면, 악마에게 이용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생하면 악마를 알고 악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증거의 능력을 주십니다

중생함을 받은 생명이 자라면 진도할 마음이 생겨 나서 진리를 아는 성도로서 지옥갈 생명들을 위하여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담력으로 증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싸움입니다. 양심과 욕심의 싸움터입니다. 이 양심과 욕심의 싸움이 끝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회생·봉사의 마음이 자라면 양심이 욕심의 세력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에 빛이 나고 어두움[죄악]이 물러갑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에 천국이 건설됩니다.

성령님의 사랑 받은 자의 할 일은 순종

성령님의 은혜 받아 바로 살려진 우리들에게는 순종이 가장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씀 순종하면 지식이 자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인격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앙인격이 자라 천국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교만한 고집을 세우지 마시다. 다만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인격이 날마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도 80이 되면 자라지 못하고 무식해지는 것처럼 삼십년을 밀고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이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모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월의 행사

- 1일~3일 / 당회장 대전중앙교회 집회인도
 4일 / 대학부 향상음악회
 5일 / 제직회 · 재정위원회 · 남전도회임원회 · 여전도회임원회 · 월간충현편집위원회
 6일 / 산업전도회월례회(광릉)
 12일 / 남전도회월례회 · 권사회월례회 · 여전도임원회
 19일 / 총동원전도운동의주일 · 월간충현 6월호발행 · 재정위원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0일 / 교육위원회
 20일~24일 / 제 3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 당회장 부산지구민족성회인도
 26일 /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27일~30일 / 당회장 북한선교회 집회인도
 28일 / 정기당회
 27일~7월 2일 / 수도노회주교 여름교사강습회

6월호 차례

- 〈말씀〉 성령님의 사랑 / 김창인 목사.....2
 〈권두언〉 전도의 종합적 프로그램 / 주간.....4
 〈이달의 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5
 〈간증수필〉
 • 기도의 힘, 신유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 김한홍 장로.....6
 •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 홍화옥.....6
 • 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 / 김치일 집사.....7
 • 신앙의 1번타자로 멋진 홈런칠터 / 정필걸7
 〈특집〉
 현대 기독교교육의 동향 / 김득룡 교수.....8
 〈기관소개〉 전도위원회-전도의 작전본부.....12
 〈적분론②〉 적분자의 기본적 사명 / 정상우 목사.....13
 〈1200자 칼럼〉 또 6월이 와서 이어지는 생각들 / 성주진.....14
 〈찬송가해설〉 신자되기 원합니다14
 〈책소개〉 초신자 육성교재 · 상담심리학15
 〈도서정보〉15
 〈순교자화⑧〉 충성스런 지도자 조만식 장로 / 이정웅 전도사.....16
 〈이단종교비판⑤〉 통일교 / 윤형철 전도사17
 〈해외선교〉 바야흐로 충만한 은혜 속에18
 〈구역장노우트⑦〉 신앙지도의 지침(9) / 백성룡 목사.....19
 〈구역소식〉19
 〈청년신앙수필〉 • 소박한 삶 / 양영숙20
 • 어린이와 어른 / 정관용20
 〈청년신앙간증〉 의사들이 가진 것 / 박행렬21
 〈교회 뉴스〉22
 〈해외성도 편지〉 동쪽 마지막 선교의 요람, 나의 조국 / 홍정일25
 〈기자석 · 편집후기 · 표지설명〉26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실로암 못가에서〉28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월간 충현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전도의 종합적 프로그램

교회가 지니고 있는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전도와 설교다. 그래서 2천년이 내려오도록 여러 모양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무한한 희생과 노력을 해왔다. 지금도 사도행전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교회는 온갖 힘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9장적인 사명을 계속 완수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6개국에 7명을 파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전도에도 놓여온 교역자·평신도 초청훈련을 비롯하여 파송전도와 수많은 개척전도에 큰 힘을 쏟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도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와져야 하겠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다. 현대는 분명히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며 바쁜 시대이다. 이런 스피드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시대는 신속과 대량(大量)의 시대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교회의 전도나 선교방법도 새로운 종합적 프로그램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전도나 선교가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좋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전도의 급선무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상으로 부터 교회가 탈피하는 일과 사회의 창조자적 구실을 할 수 있는 영적·내면적인 가치관 확립이 있어야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전도의 직능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전도를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전도기구의 단일화다. 특수전도를 살리면서도 기구는 단일화가 되어야 헛 수고와 재정의 낭비를 덜고 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총동원 전도의 행사를 앞에 두고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글자 그대로 총동원전도라면 집중적이고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전도나 선교가 사치나 시위가 아닌 만큼 소원도우식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근년에 한국에 있었던 몇몇 맘모스형 집단전도처럼 시위효과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도 대상을 노방(걸가)을 삼을 것이냐, 인근 주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지역이나 하는 등등의 면밀하고도 진지한 문제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도나 선교의 사명의식 고취를 위해서 각종행사를 벌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전도는 하자고 해서 되는 면보다는 전도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어 주는 면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전도의 동기를 조성하는 방편으로는 전도 특별집회(훈련·세미나)를 통하여 전 성도들이 함께 전도의 힘과 필요성을 갖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간의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고 교우간에 지체의식을 체험하도록 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온 교우가 일년에 한 번이라도 훈련일체가 되어 전도를 하게 함으로써 크리스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함을 스스로 경험케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사들로서는 전도간증이나 전도헌신예배를 통해 전도열을 함양함과 전도지 전 사회 또는 전도에 많은 기록을 올린 사람들에게 대한 표창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모범교사·어린이들에 대한 표창도 좋으나 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앞에서는 전도표창이 훨씬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한가지 더 부언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사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다. 평신도전도인(유급)을 50명 혹은 100명을 두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전도를 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네째로는 체계있는 전도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전도는 하나의 영적 전쟁이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훈련 없이 무기만 들려 내보낸다면 죽이기 위한 무모한 전략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귀 앞에 나서는 영적 군사들을 훈련 없이 전도의 싸움터로 내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필요성의 교육과 의무성의 교육과 필승의 교육이 철저히 있는 후에야 총동원전도의 성과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전경 현대적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여 총동원전도는 종합적 의의를 주의깊게 연구하여 시간과 돈과 정력의 낭비가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주장>

전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의 에이레(Eire) 나라에서 생긴 이야기이다.

코르크에서 수도 더블린을 향해 가는 열차가 버티만트역에 도착하였다. 일선지대에서 오는 두세 명의 장교가 차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거기에는 벌써 꽤 노인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토마스 트렌치라는 사람이다. 그는 아일랜드 출신이며 소박하고 솔직한 전도사로도 유명하였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험상궂게 생긴 장교들 중의 한 사람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켜려 하였다.

트렌치 전도사는 정중하게 예절을 갖추어 공손히 말했다.

“장교님, 이 열차 좌석에서는 흡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장교는 힐끗 쳐다보면서,

“남이야 피우면 말진 나는 담배를 빨아야겠소.”

하더니, 담배를 고쳐물고서는 불을 켜는 것이었다.

두세 번 주욱 들여빠는 것을 본 트렌치 전도사는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거기 알맞게 대처해야지>라고 생각하였다.

“여보세요, 장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장교님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위엄있게 말하였다.

“뭐요?” 벌컥 소리치르면서 장교는 화를 내었다.

“내 말의 뜻은 장교님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트렌치 전도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쳐요, 이 늙은이!”

장교는 언성을 높였다.

“에, 제 입이 다물어진다 해도 장교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늙은이 한 마디만 더했다가는 창문으로 내어던지고 말겠소.”

라고 그 군인은 격한 어조로 말했다.

“장교님, 내가 창문으로 던져지든 말든 관계없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장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쥐고는 트렌치 전도사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나 옆에 동석했던 친구장교들의 만류로 간신히 저지되어 주저앉았다.

“저 미친 늙은이를 이곳에 그냥 뒀?”

“에, 제가 미쳤든 안 미쳤든 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트렌치 노인은 끈덕지게 말하였다.

기차가 다음 역인 칼리빌에 도착했다. 장교들은 할 수 없다는 듯 모두 뛰어내려 다른 칸을 찾아가고 말았다.

트렌치 전도사는 차창을 열고, 그들을 향해 소리질렀다.

“여보게 장교님들, 내 걸을 떠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약 2년 후, 어느 날 트렌치 노인이 좀 쉬어 가려고 어떤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청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여보세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2년 전 기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장교입니다. 저는 그 날 집에 와서 아무리 해도 할아버지의 음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끝내는 예수 믿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읍니다!”

“에, 기억합니다.”

노인의 두 눈에서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데서 할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니 꿈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말씀이 군대의 기상나팔처럼 저의 귀에서 계속 울릴 때에 저는 참으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 얼마나 행복하고 깨끗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부자(父子)가 서로 만난 듯 기쁨으로 담소하고 있었다.

※ 이 글은 조오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라는 사람이 전래주는 전도실화이다.

기도의 힘, 신유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김 한 홀 장로
(새신자부 부장)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릴 때 교회로 불러주신 일이다. 한 성도로서 오늘날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인데, 그러한 길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데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것과는 달리 나는 형에게 끌림을 받아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그러한 내가 한 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부끄럽게도 청소년 시절에 얼마동안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지 않은 것은, 더우거나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유년주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영향으로 나의 생애를 지배해 온 것은 「신앙과 성실」이었다. 이 세상에서 금보다 귀한 신앙을 가지고 신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신념이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에서 대과(大過)없었던 것은 그런 신념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신앙이나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40대에 들어서며 크게 앓게 되었다. 웬만한 치료에도 병세는 악화되어 낙망 중에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 때 주위에서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특별히 매어달려 보라는 권유도 있고 나 스스로도 그런 뜻이 있어서 산 속의 기도원에 들어갔다. 어떤 때는 글썽 같은 때 들어가서 밤새워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는 한편 신유의 능력있는 중을 통해 기도받고는 었은 듯이 회복되었다. 육신의 치유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 이때부터 나에게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도중에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더우거나 신유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였다.

나의 생애를 지배해 온 것은 「신앙과 성실」이었다. 이 세상에서 금보다 귀한 신앙을 가지고 신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신념이었다.

기도의 능력!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주위에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 가끔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집회도 인도하게 되었다.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과 함께 눈총과 오해가 오기도 하였다. 오해, 그것은 참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괴로움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어찌하라. 어쨌든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큰 기쁨이요 보람이요 삶 전체이다. 사람마다 은사가 각각 다른데, 나에게 주신 것은 「기도」라 생각한다. 기도의 사명. 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홍 화 옥
(청년부 회원)



나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배우며 생활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대로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내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며, 별다른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지냈다.

고3 때에는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학원에서, 또 도서관에서 보내며 대학입시준비에 열중했었다. 나는 노력하는 데서 기쁨을 찾았고, 계속 공부하여 대학 교수가 될 것을 꿈꾸었다. 대학에 입학하자 나는 기대가 컸던 만큼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 대학 생활에 대하여 걸었던 기대가 사라지고, 친구들에 대하여 또 존경했던 교수님들에 대하여도 실망하게 되었다.

기도대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삶의 보람과 목적을 주시고 매일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실망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공부해 왔나?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여러가지 질문이 내 속에 생겼다.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이 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었다. 어제와 오늘도 똑같이 지리하게 반복되는 지리한 생활 앞으로로도 이렇게 변화 없이 반복되는 생활이라면 정말 만족할 수가 없다고 느꼈다. 이제는 뭔가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성실하게,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가 일어나야만 한다고 느꼈다.

무엇을 찾아야 하며 내 속의 갈증을 채워줄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대학부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자연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예수님만이 나를 속속들이 살피시며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처음으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 놓고 기도하였다. “예수님, 나는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대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삶의 보람과 목적을 주시고 매일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는 어두운 생활이 아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할 일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를 따라가는 것 뿐이다.

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

김 치 일 집사
(고동부 교사)

간혹 전도를 받은 일이 기억난다. 어려서 교회에서 과자 타 먹던 일이 생각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짝하듯만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사탕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는데 그리로 올라가 보니 나와 나의 아들이 먼저 올라와 있으면서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와서 아내를 부르면서 천국에 올라오려면 이 물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전자의 물을 내밀더라고 하며, 당장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도 나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였다.

아내가 교회에 간지 3개월 지난 후에야 나는 교회를 찾았고 또 3개월이 지나서는 담배도 완전히 끊게 되었다. 은혜를 감당할 나머지 부흥집회하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여러 모양의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인상깊었던 것은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새벽제단을 쌓는 시간에 일어나서 몸을 정돈하고 난 후 향내가 진동하는 냄새를 맡게 되니, 그 향기는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하던 것이었다.

전도할 결심을 가진 후로 나는 차안에
서나 어디를 가든지 열심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후에도 하나님은 나의 직장, 개인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주심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여 본교회의 일이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면 충성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차안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길은 감동을 받아 전도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로 나는 차 안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열심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전도를 하는 중 나는 몇가지 전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게도 되었다.

첫째로 차에 마이크장치를 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픈 것이고, 둘째로는 헬리콥터에 마이크장치를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픈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며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다.

아마도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자 그처럼 꿈속에서 나를 불러 주셨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주님 고맙습니다」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신앙의 1번타자로 멋진 홈런 칠터

정 필 결
(고동부 2년)

인간적으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시로 알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기억하시어 창세 전에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한 외롭게 하시어 값없이 거저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 예수님의 공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배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이 시작되는 첫날—이 모든 사실들은 후에 성경을 통해 확신한 바다—역시 제일 먼저 생긴 일은 주의 말씀대로 집안에서 영적인 싸움과 쟁박과 시험이 생긴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자극하여 깨닫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확신을 주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구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고 가정임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 얼마 후 성령님의 은혜로 나 자신의 혈과 육이 죽어가고 있는 기쁨을 느끼었지만 또한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나를 몹시 끈고게 하여 주님이 날 좀 더 어릴 때부터 부르셨으면 지금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시고 특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늘 이같이 말씀으로 때를 따라 은혜 주셔서 확신에 확신으로 주께서 날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날 키워오셨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나는 내 마음밭에 있는 돌짜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와 성령
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다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확신한다. 이제 나는 내 마음밭에 있는 돌짜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내 생활이 점점 더 윤곽하여지고 주님과 좀더 깊이있는 교제를 가져야겠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열심으로, 감사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나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나의 친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의 식구 중에서 신앙의 1번타자로서 멋지게 홈런을 날려야겠다.



현대 기독교교육의 동향

김 득 룡 목사
(총회신학대학 교수)

◇... 월간총회는 금년들어 우리교회에서 가장 힘을 기울여 애쓰고 있는 교회...◇
 ◇...의 현 위치와 앞으로 방향설정을 위한 특별기획을 수립·진행해 오고 있...◇
 ◇...다. 5월호에서는 일선 교육담당 지도교역자들의 좌담을 통해 총현주교의...◇
 ◇...전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좌담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교교육의 문제는 또 다시 반전(反轉),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
 ◇...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했다. ...◇
 ◇... 차제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총회신학대학 교수 김득룡 목사(기독교교육...◇
 ◇...문학박사)를 초청 「현대 기독교교육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위원들...◇
 ◇...에게 특강을 한 일이 있다. 월간총현에서는 본 특강의 원고를 녹음정리하...◇
 ◇...여 여기에 소개하게 됨을 무척 다행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교회의...◇
 ◇...주교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목을 하나하나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교회에 있어서의 주교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의 설계 등을 계획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
 ◇... <편집자>...◇

현대기독교교육의 경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선 네 가지로 분류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사상적인 면에서의 변천

교육은 사상적인 면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기독교교육이 신학에 예속되어 실천신학부분에서 아무 특색 없이 있었다. 19세기 말엽에서부터 태동하여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교육의 경향이 사상적으로 큰 변천을 가져오게 되었다.

1930년전까지는 기독교교육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교육의 사상적인 모든 주장을 해왔다. 미국의 유명한 조오지 코이(George Coe)는 신학적으로 슈라이어 락허(Schleiermacher)에 철학적으로는 실용주의에 근거를 하였다. 그래서 1930년대에 와서 기독교교육은 완전히 사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자유주의적인 신학 바탕과 자유주의적인 철학에 근거해서 움직이던 기독교교육의 사상적 배경이 1930년대를 기점으로 복음주의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복음주의로 바뀌어지면서 종교교육이라고 부르던 것이 기독교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930년대를 전환점으로

지금도 종교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 철학적 성서적 배경을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외식·무의식 중에 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종교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1930년에 사상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기독교교육은 철학적으로는 실용주의철학에서 탈피하고,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서 정화무오한 성서에다 근거를 둔 철저한 복음주의, 개혁주의신학에다 근거를 둔 기독교교육으로 새출발하게 되었다.

1960년대 복음주의의 기독교교육으로

그러나 이 기독교교육의 사상적인 변천은 1960년에

와서 또 다시 일어났다. 1960년에 와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이 많이 변색이 되어 복음주의라는 개념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교육은 신학적·성서적 배경이 다르고 또한 철학적 배경이 실용주의 철학과 타협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생기자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정통복음주의 기독교교육인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성서적·철학적 배경의 달라짐으로서 일어난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기독교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상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기독교교육은 교파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상적인 변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교육의 사상적인 동향은 신학적인 사상동향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신학적인 사상배경의 색깔에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색깔도 변한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신학·철학사상 배경 위에 기독교교육을 확립하게 해 나가야 하는 문제에 처해 있다.

2. 교육내용의 체계화

두번째는 교육내용, 즉 커리큘럼의 체계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마아샬(Marshall)이라는 사람이 장로교의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가를 「기독교 교육의 패턴」(Pattern of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기본적인 기독교교육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현대동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의 경향은 교육내용이 사상적인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내용의 정리화가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의 문제를 제시하는 가장 큰 방향이 된다. 즉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 곧 주일학교공과

교회가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 지
육금행열자를 태워내는데 결과를
낳게 되므로 기독교교육은 교회가
책임지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해
야 된다고 역설하는 김득룡 목사.



가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리공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일학
교의 공과가 교리적인 배경이 없이 가르쳐 왔기에 이
것이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리를 바로 가르치는 데 기초를 두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교리를 어떻게 바로 가르쳐야 하느냐 하
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장로
교의 신학적 배경에서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입장에
서 마야살은 장로교의 주일학교 공과라는 계약커리큘
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계약
커리큘럼(Covenant Curriculum)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교리에 입각한 장로교회적인 공과로 성경공부가 교리
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
이다.

오늘날의 세대는 너무 복잡해져서 혼합주의 또는 소
위 연합운동, 에큐메니칼운동 등으로 특색이 없고 색
깔이 구분되지 아니한 교육의 내용을 제시해 줄으로써
아주 위험한 지경에 도달해 있는 것이 우리가 누누히
강조해야 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독교교육의 가장 분
명한 사실은 성경자체를 성경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임
을 생각할 때 교육내용에 관한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어두운 움직임이 오히려 우리에게서는 기독교
교육의 교과과정을 만드는 데 더욱 심혈을 쏟을 수 있
게 하였다. 이 원칙은 첫째 이념적 통일인 것이다. 확
실한 이념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커리큘럼
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의 수립이다. 말하자면 교육
관, 목적제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계열화이다. 이 계열화, 계열정리라는 것
은 영아부,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의 공과가 별개
로 작성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상호유기적이고 연
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밑바닥에 충분한 잔토를
깔고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의 계열이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꼭 연결
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이 옳으로
출어지지 아니하는 계열의 정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나

또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적용의 현실화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각 개교회에 자기의 환경과 정도에 맞는 교과내용을
택해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총현교회에는 적합한데 성도교회에 적합치 않은 것
이 있으며, 반대로 성도교회에서는 맞는데 총현교회에
서는 안맞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교단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자면 각
학년별 계단공과를 쓰는 교회를 생각하고 또 각 부별
계단공과를 사용하는 교회를 생각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공과를 쓰는 데를 생각해서 좀 더
다양화하여 통일공과의 효과를 심본 살릴 수 있는 방
향으로 나가야 한다. 현실에 알맞게 적응하는 것이 오
늘날 중요한 교육의 동향 중의 하나인 것이다.

3. 행정조직의 실현화 문제

지금 이 세대는 다양하고 다원한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다원화하여 교육효과를 거
두는 데 충분한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
늘날 기독교교육의 커다란 동향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 자체에서 자율적인
시행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행정의 자율화를 생각할
수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조직화를 말한다.
자율적으로, 다원화하여 나아가지 않는 입장이 또한 일
정한 조직체제하에서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은 마치 우리 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유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또한 일정한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
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행정의 자율·조직·전문화로

또 한가지로 행정이 전문화로 되어가고 있는 동향이
다. 어린이 지도자는 어린이의 전문적인 지도방법을
습득하여 어린이지도자로, 청년은 청년지도자로, 장년
은 장년지도자로 하는 각 부분의 전문가를 세우는 교
육의 전문화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교육학과를 나오고 석사과정을 마
친 다음에 1년동안은 전문적인 분야의 훈련을 시킨다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문서사업이면
문서교육 등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각분야에 전
문적인 인재를 채용하여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

독 해나가는 행정체제가 이루어 가고 있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교육의 동향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주일학교별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총회에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훈련기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 현대 기독교교육운동의 구체적인 경향

현재 기독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이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는 무디성경에서 강의하는 분들이나 ○○○ 박사 같은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달라스신학에 있는 헨드릭 박사나 코일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벨 박사나 이런 분이 이야기하는 데에서 12가지의 내용을 추려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역사적인 면에서 고찰해 볼 때 12가지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 기독교교육은 전적으로 교회가 위임받은 사업으로 인식하는 운동이다

기독교교육은 다른 분야에서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임받은 사업으로 깊이 인식하는 동향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옛날에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고 교회가 해야겠다고 해서 교회에다 위임했다. 그 이유는 학교는 장로교·감리교·침례교·성공회·가톨릭 중 각 교파에서 각 교파대로 할 수 없기에 각 교파대로 하라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 옛날에 주에서 설립한 학교에 전부 성경교과목이 있어 각 학교에 맡았던 것이 식민지시대·독립시대 이후에 죽 해왔던 것이 이제는 절반이나마 50주에서 25주가량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앙교육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학교(mission school)에서도 일반 대학입시에 중점을 두어 자동적으로 교회에 일임하게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보조정도로 기독교학교들이 배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예전에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시, 같은 기독교계통의 교목들이 모여 이야기를 한 결론이 학교는 기독교교육을 할 수가 없다.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결론을 얻은 적 있다. 그 이유는 교장이나 전교 직원 이목사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교목 1명으로는 절대 안되는 일인 것이다. 심지어 성경시간에 창조설을 가르치는데, 다음 시간에 생물학선생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한 역사선생은 진화방법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데 성경시간엔 성경역사방법으로 가르치고 하니,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따라 할지 참 문제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게 커리큘럼이 작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을 전적으로 교회가 청부한다시피 독점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요즘의 메스컴, 특히 텔레비전이 가정에서 성경을 추방해 버리는 사태가 왔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이야기해 주면 그런 옛날 이야기는 뒤에 하고 “야, T.V. 켜라, 무슨 연속극 있지?” 하며 가정의 아이들이 연속극에 미쳐 있는 상황

이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기독교교육을 할 수가 없고 교회에다 떠맡기게 된 것이다.

이제는 교회에서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을 배워주는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가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 지옥급행열차를 다 태워 보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사람의 출생에 비해 천국백성 만드는 비율이 적으니까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불신자로 화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은 교회가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대인 것이다.

(2) 각교회 담당 목사들이 교육을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교육에 열중하게 된 일이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설교를 하던 일이 90%가 되고 교육은 조금만 하던 것을 이제는 신학교마다 기독교교육과목을 두고 기독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4학점 이상 8학점을 취득해야 신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게 되었다.

현재 총회신학대학만 해도 6시간의 기독교교육시간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교역자들이 목회의 정책에 교육계획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게 되었다.

(3) 주일학교교육을 세분화시키는 움직임이 실현되고 있다.

세분화가 획일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건물을 지을 때부터 교육용을 위한 건물을 별도로 짓고 있다. 이것은 100년 전, 1800년 미국의 아콘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는 대에배설보다 교육관이 10여 배가 더 넓고, 또한 미국에 있는 아무리 작은 농촌교회라도 지하실에까지 교육시설을 해놓고 있다. 심지어 시설이 없으면 기둥에다 칸막이를 막아 놓아 교육시설 및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시설면에서 세분화 안되면 교육이 안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동향이다.

(4) 기독교교육의 확대에 따른 지도자의 양적, 질적 개발이다.

지도자이 질을 향상시키고 또 많은 수의 지도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심해지고 있다. 일반학교 교육에서는 교육이 잘 되는 요소가 몇가지가 있으나 생각해 볼 때 좋은 교사에 좋은 학생,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은 학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직교육, 계속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것에 따라서 교사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일반교육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교육에도 대학에 기독교학과를 두고 신학교에 기독교교육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세우고 또 각 교회에서는 평신도지도자의 교사양성을 확대시켜 지교회별로, 노회별로, 총회별로 세미나를 통해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의 한 동향인 것이다.

(5) 청소년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어떻게 바로 지도하느냐? 그래서 중·고·대 청년부에 대한 조직, 자치활동을 강화시키고 생활지도를 철저하게 시키는 운동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직후에는 학생회만 조직해서 학생들

끼리 자치활동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안되겠다」 이런 정상교육을 해야겠다고 자각하고 예배·성경공부·생활훈련 등이 세가지를 균형있게 조화하여 예배와 성경공부와 생활지도를 통해 신앙훈련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또 하나의 특수한 동향인 것이다.

(6) 장년부 지도에 대한 운동이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장년부공부를 5-7명의 소수를 장로·권사·집사들이 담임토록 하여 그들을 가르치도록 한다. 이것은 장년교육과 아울러 가르치는 담임들 즉 장로·권사·집사들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년부 공부를 수십명을 합반해서 시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가르치는 목사만 공부시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청장년공부는 안 되는 것이다.

(7) 방학기간, 방과후 여가시간을 통한 교육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여름·겨울 성경학교운동이다. 여름성경학교 운동은 186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은 1901년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1922년부터이다. 이처럼 방학이나 여가시간을 통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8) 주간학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삼일기도회시간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주간학교라고 볼 수 있지만 1주간 중 어느 날을 정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운동을 주간학교운동이라고 한다. 또 주간그룹이라고 해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또 가정주부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 이런 것이 모두 주간그룹운동이다.

(9) 학령전 아동교육 강화운동이다.

우리나라에 영아부 조직을 가진 교회가 손꼽을 정도이다. 아마도 서울에서는 중천교회와 영락교회 정도만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는 영아부 졸업생인데, 50여 년 전에는 많은 교회에 영아부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 필자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 농촌교회였는데도 영아부조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는 현재 학령전 어린이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학령전 어린이교육에 큰 관심을 두어 유치원을 교회에 두어서 교회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계통의 유치원은 가장 모범적인 유치원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교에서는 이것을 안하고 있다. 유치원교육이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기독교교육을 잘 하는 것이다. 학령전 어린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인간성 성격의 70-80%가 8살 이전에 형성된다. 즉 국민학교가 이전에 형성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올바른 인간성 형성을 학령 전에 시켜야 하는 중요성으로 기독교교육을 학령전교육에 열중하게 만들고 있다.

(10) 특수아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특수아교육은 기독교교육에서부터 일어났다. 지나치게 머리가 좋아서 천재교육을 시키야 되는데 이는 기독교교육에서 아니면 다른데서는 못한다. 지능이 좋아 어린이가 영어·한문 등을 잘 하는데 사회성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 이것은 신동(神童)이 아니고 문제아일 뿐이다.

그런 어린이부터 저능아·진체아·신체불구아·소경·농아 등에 관한 교육을 기독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11) 가정교육의 강화운동이다.

이것은 특별히 1570~8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존 나스 등이 운동을 전개했지만 오늘날에는 가정교육을 잘 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다. 이러한 것이 오늘 기독교교육의 동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12) 교육방법 개발운동이다.

교육방식에 있어서 옛날식은 억압식이었다. 요즈음은 타협적·홍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 잘 해라. 돈 준다” “아버지, 얼마 줄래요?” “100원 준다” “아이 100원이 뭐예요?” “그럼 200원 준다...” 이런 식으로 홍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에서도 “전도해!” “상한다, 상!” 하니까 어린이들이 전도를 왜 나가느냐 하면 상타기 위해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상타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소위 오늘날 민주주의 교육인데 이것을 주일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의 감동식이랄까, 성경식이랄까, 성령의 감동을 취서 인격적 감동을 취야 하는 것이다. 은혜를 끼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 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내가 감동받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감동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안겨주는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기독교교육의 방법개선의 방향이 되고 있다.

(12) 사회적 경향에 민첩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운동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도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농민이 80%였지만 지금은 50%밖에 안된다. 이런 면에서도 기독교가 농촌교육에 너무나 소홀했다. 사회에서는 무관심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모든 생활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기계화가 되면 정신적으로 정서가 메마르게 되는데 기독교가 이런 결함을 메워줘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도덕적인 면에서 전설해야 한다. 실생활면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면에서 앞장서는 모범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탈피운동을 해야 한다.

이와같이 사회에 대하여 민첩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또 하나의 운동이다.

이상 이 현대기독교교육의 동향이다. 사상적인 동향 교육내용의 체계화, 행정조직의 전문화, 또한 현대기독교교육의 구체적인 운동 12가지 등으로 이야기했다.

(정리 : 이형수 집사)

전도활동의 작전본부

— 체계있는 전도전략 · 지도연구 목적으로 —

◇ 목 적

1953년 교회설립 초기의 우리교회의 전도활동은 극히 소극적이었고 산발적이었으며 주로 젊은이들이 핵심을 이루어 왔으나 23년이 지난 오늘의 전도활동은 놀라리만큼 확대·성장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1954년 제직회가 조직되면서 제직회의 한 부서로 전도부를 두어 교회내의 각부 전도사업을 지원하여 오던 것이 1973년부터는 당회 직속 기구로 개편되어 남·여 전도회와 해외전도 및 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소 전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교회전도사업의 체계를 세우며 각종 전도사업에 대한 전도전략을 연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도사업을 수행키 위해 전도부가 발족되었다. 그 후 1976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복음전도사업(행 1:8)을 성실하고 효과있게 수행하려고 교회 내의 일관성 없는 전도활동 및 단체를 통합하고 전도전략의 지도 및 연구를 위해 당회 위촉기관으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 추진키 위해 오늘의 전도위원회가 발족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 구 성

전도위원회는 위원장 최석주 장로를 비롯하여 서기·회계·기획분과·외지분과·내지분과·특수분과·총동원분과가 있어 각 분과에 교역자 1명, 장로 1명, 집사 1명씩으로 위원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도교역자로는 정기성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각 분과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획분과

교회 내외의 전도활동 및 단체의 현황 파악, 전도에 대한 자료수집, 국내외 전도의 방향제시의 일을 한다. 전도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분과라 할 수 있다.

2. 외지분과

해외전도를 통할하며 교회자체로서 해외전도계획을 수립하여 선교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을 하므로 해외선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특히 교회의 입장을 해외선교부에서 실천할 수 있게 방향제시를 해주며 선교사가 파송되기까지의 계획을 맡아 본다.

3. 내지분과

국내전도에 대한 계획 및 실천의 업무와 지교회 운영 및 지도, 지방전도단체의 지원 등의 일을 한다.

4. 특수분과

군대·병원·기업·학원·문서 전도 등의 특별한 지역에 대한 전도업무를 담당하는 분과로 교회내 각 전도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최석주 장로)

5. 총동원분과

교회내 교인의 전도훈련 및 각종 전도행사와 각 전도단체의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회 의

각분과의 모든 문제의 상호유기적인 조정을 위해 매월 4째주일에 정기월례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도 가진다. 정기월례회에서는 보고·안전처리·신안건토의 등을 처리하며 안전처리 사항은 지방교회 일시보조 청원처리 및 지교회 협조청원 처리가 많다. 보조방법은 연중계획에 의거 지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조와 매월 지방교회를 대상으로 청원에 의한 일시 보조가 있다. 전도위원회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지 교회는 통일촌교회·서남교회(제주도)·화전교회(경남)·영광교회(성남, 매향교회)·태평교회(대전)·대성동 교회(비무장지대)·덕천교회(경남)·철도신우회·경찰병원 등이다.

◇ 주요사업

지난 해는 지교회 전도지도 및 전도운동을 벌였으며 6월 전도의 달에는 설교를 통한 전도편면, 신앙옹변 대회, 3주간 계속 노방전도, 안드레 전도대회, 전도지문안 현상모집, 군중하사관 훈련(1사단) 등의 사업을 하였다.

금년도 사업은 ① 지방전도(지교회보조) ② 해외전도(선교회 보조, 선교사 파송, 지교회 설립) ③ 교회내 전도(부흥회, 안드레전도, 농어촌전도, 선교 및 전도의달 행사) ④ 특수전도(군중하사관 훈련, 사관학교 전도, 방송전도, 문서전도, 학원전도) 등이며 특히 이번 전도의 달에는 각지교회에 전도의 달을 지정, 전달하고 각기관 전도단체를 동원시켜 병원·경생원·정신박약아·소년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전도할 계획이며 군중하사관 훈련은 7월 중에 있다.

◇ 문제점

대교회로서 교회 전체 전도사업을 통괄해야 함은 필연적 사실인 듯하다. 이를 위해 교회내 각 전도단체에서는 일관성있고 체계있는 전도사업계획 수립에 최대한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고 지교회 설립은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지도하는 데 역점을 두어 자립할 수 있게 세밀한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한다.

◇ 전 망

현단계는 전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키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바 앞으로 2~3년에 정확한 현황파악과 자료수집을 하여 활발한 전도전략을 세워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지교회를 세워 해외선교활동의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보수신앙을 해외교포들에게 유지·보존시키는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고재원 기자〉

직분자의 기본적 사명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 ...『이 공동적이고 유형적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교역자와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주...□
□...셨으니 이는 금생에서 세계의 종말까지 성도를 모으며 완전케 하기 위함이며 자기 악...□
□...속대로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하여 그 주신 것 등은 그 목적에 향해 효력을 내게 한...□
□...다』(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25:3) □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을까? 직분을 맡은 자가 명심해야 할 기본적 사명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 4장 11-12절)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두신 세가지 큰 목적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세가지 큰 사명을 찾아 볼 수 있다.

1.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

여기 「온전케 한다」(카타르티스문)란 말은 외과의사들이 손과 발의 뼈가 부러졌을 때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제자리에 꿰어맞추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막 1:19에서는 뭉어진 그물을 다시 깎는 데 사용되었고, 갈 6:1에서는 범죄한 성도를 바로 잡아주는 데 사용되었다. 여하튼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의 기본적 개념은 「바로 있어야 할 좋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직분자들은 성도(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엡 4:13)에 이르도록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돌봐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바로 있어야 할 좋은 상태」에 있게끔 그들의 신앙생활을 돌봐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직분을 결코 나 자신의 명예나 권리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며 일해야 하고, 나의 봉사로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믿음의 손해를 당하고 있는가 「반성」하면서 일해야 하며, 내가 하는 모든 봉사가 성도(교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충성」해야 한다(행 20:20; 롬 1:11; 14:13-16; 고전 10:32-33; 마 18:6).

2. 봉사의 일을 하는 데 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직분」이란 여러 단어(지난호「직분의 뜻」 참조)들이 갖는 중요한 뜻이 바로 봉사이다. 여기 「봉사」(디아코니아)란 말 배후에 있는 중요한 개념은 실제적 봉사이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직분의 이름만 갖고 있거나 말만 하고 실제적 봉사가 없다면 이런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말씀

하셨는데, 여기 「섬기려 한다」는 말이 바로 「봉사」(디아코니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봉사하셨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언제나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는 봉사자(일꾼)로 일하라고 세우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5 달란트나 2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부지런히 받은 달란트를 선용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마 25:14-30). 그리고 일하고 난 후에는 자만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눅 17:10)하고 겸손히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일이든 —피롭고 힘든 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지고 가는 충성스런 봉사가 있어야 한다(마 16:24; 빌 2:1-8).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여기 「세운다」(오이코도멘)이란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뜻과 함께 「덕을 세운다」는 뜻이 있다(롬 14:19; 15:2; 고전 14:3,12; 고후 10:8; 13:10; 엡 4:29). 우리는 여기에서 두가지 면에서 세운다는 뜻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건물의 각부분이 서로 온전하게 연합됨으로 집이 건축되는 것처럼 직분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분자가 봉사하는 일로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세울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롬 14:18,19; 15:2).

그러므로 직분자는 언제나 내게 주신 직분은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건강하게 더욱 은혜스럽게 부흥시키며 세우라고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일해야 하며, 또한 언제나 나는 내 직분으로 얼마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반성하면서 일해야 하며 직분자는 언제나 교회내 화평을 위해 덕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더욱 은혜 가운데 부흥되게 하는 일에 힘써 충성해야 한다. 결코 쓸데없는 언쟁이나 고집으로 화평을 파괴하거나 형제에게 근심을 주고 교회의 덕을 깨뜨리는 일을 삼가야 된다(롬 15:13-20; 고전 10:31-33).

이렇게 섬길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는 생명의 려이 넘치는 은혜스런 교회로 부흥될 것이다.

〈다음호 계속〉

1700년 전

또 6월이 와서 이어지는 생각들

성 주 진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가슴저린 하루를 상한다. 아직도 상흔(傷痕)이 남아 있는 멀쳐 버리고 싶은 악몽으로서든지 역사의 아픈 교훈으로서든지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27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그 날을 잊지 못한다.

특별히 교회는 이 날을 더 큰 각성으로 대하게 된다. 분단된 조국을 앞에 놓고도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내리신 하나님의 제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교회는 잠잠치 않았다. 기회있을 때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기도회 등을 가져 자신과 교회, 민족의 죄까지도 담당하는 기도를 드렸다. 오늘날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북한과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줄을 깨닫고 이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이 점점 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자궁할 것은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확신 가운데서 이 믿음을 이루어 가야 할진대, 미국의 정복업안자들의 말 한 마디에 일비일희(一悲一喜)할 것이 아니라 진정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를 섭리·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바로 서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된다.

참된 신앙의 부흥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외형적 구미이나 신비주의적 감상이나 교리만을 논하는 좁은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바로 교제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신앙 기반이 다른 모든 행사나 사업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빙빙만 관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온 교회가 밀고 간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담대하게 뛰어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그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앞서 필요한 일을 찾아본다. 지난 번 낙동강 이남에 물러 나라가 위급에 처했을 때 부산 초량 교회에서는 목사·장로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와 있어 전쟁의 국면이 휘바뀔 것을 본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초량교회의 끝망이며 그 범벅된 눈물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아닌가.

찬송가 해설 16

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새 649; 개 281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 맘으로

더욱 사랑하렵니다. 참 맘으로 참 맘으로

더욱 사랑하렵니다.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참 맘으로

더욱 사랑하렵니다. 참 맘으로

더욱 거룩하렵니다. 참 맘으로 참 맘으로

더욱 거룩하렵니다.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참 맘으로

더욱 거룩하렵니다. 참 맘으로

유다처럼 안되기를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유다처럼 안되기를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유다처럼 안되기를 참 맘으로

예수같이 되렵니다.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예수같이 되렵니다.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참 맘으로

예수같이 되렵니다. 참 맘으로

(혹인 영가)

이 찬송은 경건한 내용이 가득찬 혹인 영가이다. 모든 혹인 영가가 갖는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간단한 내용의 말이 반복된다는 것인데, 이 찬송에 있어서도 1절 <신자 되기 원합니다> 2절은 <더욱 사랑하렵니다> 3절 <더욱 거룩하렵니다> 4절은 <유다처럼 안되기를> 5절은 <예수같이 되렵니다> 가 끝 끝자이다. 이 노래는 신앙생활 향상의 단계적 설명이며 이에 적합하기 위한 교실이 구어체(口語體)로 되어 있다. 곡은 5음계로서 혹인들은 꽤 느리게 부르는 것 같은데 긴 음부가 많아서 비교적 빠른 메트로를 기호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노래의 원안을 성안(成案)하는 때는 찬송가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성가로 사용하기 알맞게 가장 좋은 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 노래의 기원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다. 18세기 미국 남부의 버지니아주 하노버에서 전도하던 장로교 목사인 윌리엄 데이비스(William Davies) 목사의 1756년 기록에 따르면, 혹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는 이 데이비스 목사에게 와서 "Lord (Sir), I want to be a Christian." (주여/선생님여, 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용하여 마일즈 마르크 피셔(Miles Mark Fisher)는 그의 저서 「미국 혹인 노래의 노래」(Negro Slave Songs in the United State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노래의 기원은 앞서 이야기한 데이비스 목사가 1748년부터 1759년 사이에 버지니아에서 전도하던 때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 노래는 그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구입한 책들을 도서대장순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5월에 구입한 책

- 주님 위해 걷는 사람/봄 코리텐/보이스사
- 감옥에서 온 편지들/봄 코리텐/보이스사
- 요한복음 주석/헨드릭슨 월럼/아가페출판사
- 칼빈·칼빈주의/이근삼/고신대 출판부
- 현대기독교의 이단/모리야마/신홍중교문제연구소
- 왕과 왕국/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위치만 니의 간증/위광회/한국복음서원
- 한국기독교수난사화집/김춘배/성문학사
- 복음과 역사/김의환/C.L.C.
- 해설 신학총론/서춘웅/백함출판사
- 목회학/곽안현/대한기독교서회
- 교회개발론/린그린 앨빈/대한기독교서회
- 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박화목/선경도서출판사
-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교육/컬리야리아스/대한기독교교육협회
-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헌터 존/생명의 말씀사
- 기독교의 증거/렘 바나니/생명의 말씀사
- 영에 속한 사람/워치만 니/생명의 말씀사
- 하나님의 나라/브라이트 존/퀸클리야사
- 성서로본 성서/디트리히 수잔네/퀸클리야사
- 어린이에게 전 설교집/4명 공저/성광문화사
- 심방설교집/이찬영/성광문화사
- 주님이 부르실 때/슈링크 바실리아/보이스사
-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때/프라이스 유지니아/보이스사
- 세계종말을 위한 소망/린세이홀/보이스사
- 스페셜목사의 생애/박종주/신망출판사
- 돈과 술과 담배/임종만/신망출판사
- 요한일서/솔벤버거루실/생명의 말씀사
- 골로새서/솔벤버거루실/생명의 말씀사
- 현대의학과 성경/맥밀린 S.I./성광문화사
- 아버지는 내 아픔을/실데이빗/생명의 말씀사
- 성경연구의 기쁨/무디 D.L./생명의 말씀사
- 패배를 통한 승리/토저·A/생명의 말씀사
-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리데나워프리트츠/생명의 말씀사
- 도전받는 보수신학/김의환/생명의 말씀사
-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테일러 하워드/생명의 말씀사
- 무엇이 다른가/리데나워프리트츠/생명의 말씀사
- 20세기말의 교회/웨퍼프란시스/생명의 말씀사
- 기도/할레비오/생명의 말씀사
- 시편연구/문희석/대한기독교서회
- 예언서연구/문희석/대한기독교서회
- 구약성서성장사/로울리 H.H./대한기독교서회
- 철학적 이해와 종교적 진리/프랭크 에릭/대한기독교서회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
...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
...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
...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
...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중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김 광 식 목사편

초신자 육성을 위한 14단계

4·6판/값400원/크리스찬비전사 발행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와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도는 잘하고 있지만 교육하는 데는 매우 등한시하는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새로 나오는 초신자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은 우리의 중대한 임무이다.

물론 초신자 육성의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으나 거기에 적합한 교재가 없어 망설이며 미루어 온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감하고 저자는 초신자 지도를 위한 교재로 이 책을 내어놓았다고 하였다.

* * *

내래모어 저, 양승달 역

상담심리학

국판/376면/값1,900원/성알사 발행
본서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 남녀 교인들과 청년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상담하도록 평범하게 다루어 놓은 책이다.

상담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시·엠 내래모어 박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단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무기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상 「월간 목회」에서

충성스런 지도자—조만식 장로

이 정 응 전도사

(총신연구원 3년, 새신자부 부지도)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완고함과 유학의 사고방식에 물려 기독교를 야만인이나 믿는 것으로, 앞면 환경 속에서 1882년 평남 강서에서 조만식 선생은 출생했다. 어린 시절에 자라난 고향과 친척은 이러하였지만 24세 되던 청년 때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발전하는 시대에 고향에서 상업이나 하면서 일생을 보낼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육키 위해 젊은 청년을 부르신 것이다.

그는 24세의 젊은 몸으로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숭실학교는 복장로교 선 교부가 설립하고 경영하던 기독교계 학교로 입학 후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충성스런 교회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은 예수 믿을 때에 건실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조만식 선생은 평양에서 제일 크고 신앙이 건전한 산정현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1921년 39세 때 장로로 피택되어 일하였으며 신앙이 돈독하고 교회 봉사는 적극적이었다. 장로로 있었을 당시는 일본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특히 교회까지 괴롭히던 때였다.

그는 평북 선천에 가서 학교 교편을 잡고서 이승훈 선생과 함께 민족의 중추가 될 젊은이들에게 신앙과 애국심으로 교육하였다. 또 3·1운동에 참가하고 2년 옥고를 치른 후 신앙이 더 두터워져서 출옥한 그 해에 장로가 되었으니 그의 신앙은 대단하였다. 조만식 장로는 교회 목사를 잘 받들어 조력하였고 많은 장로와 집사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한국의 에루살렘과 같은 평양을 신앙적으로 지도할 영적 지도자를 위해 열려하여 기도하던 중, 마침 산정현교회에서 시무하던 송창근 목사가 사면을 할 때 조만식 장로는 그 교회 후일 교역자로 주기철 목사를 초빙하기로 당회가 결의할 때 협력하였으며 주기철 목사를 문창교회에서 모셔 오는 데 성공하였다.

주기철 목사는 학생시절에 조만식 장로의 제자였다. 그러나 그는 제자를 키워, 주님의 종으로 헌신한 주기철 목사를 알뜰히 사랑하였으며 이제는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목회에 적극 협력하여 순종하며 교회 부흥에 힘쓰는 충성스런 종이었다. 과거에 조만식 장로는 학교에서는 교장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주기철 목사가 교장이 된 셈이다. 사제간의 두터운 사랑과 존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고 한다. 또 주기철 목사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사참배문제로 7년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조만식 장로는 주님의 종을 잘 받들고 섬기는 것이 복받음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교역자 대접에 친히 앞장을 섰고 또 가족까지 봉양했으니 그 교회는 날로 부흥·발



◇ 조만식 장로—
생존시의 모습

전하였다.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교회였으니, 바로 산정현교회에서 주기철 목사, 백인숙 전도사같은 순교자가 나지 않았던가!

조만식 장로는 자기 제자를 목사로 모신 후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젊은 목사에게 절대 순종하였고 섬겼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잘 박힌 못과 같이 보이지 않는 솜은 봉사자였다. 한국의 조만식 선생이라 하면 모르는 자가 별로 없지만 그가 훌륭한 장로였다는 것은 모르는 이들이 많다.

산상교훈을 신조로 일제에 항거

기미 사건 이후 대부분의 동지들은 일본 관원에게 회생되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는 혼자 외롭게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싸웠다. 사람과 관용으로 동포애와 대동단결력을 국민 사이에 강조하고 경제적 자립으로 우리 산업을 건전하게 하여 가정생활을 윤락하게 하고, 비폭력과 무저항의 정신으로 조국을 자주독립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한 변함없는 열원이었다.

왜, 조만식 장로는 해외로 망명도 하지 않고, 또 창칼을 들고 일제와 싸우지도 않고 무저항주의자로 나왔던가? 그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교훈을 깊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 것뿐이다. 그는 진심한 기독교인이며 주의 교훈대로 산 성도요 장로였다.

별로 크지 않는 키에 무릎에 오는 두루마기, 수염은 별로 없고, 눈은 조그마하고, 음성은 언제나 조용한 인자하고 실천력 있는 종이었다.

충성된 교회의 장로는?

1945년 한국땅에도 광명이 비치었다. 조만식 장로는 8월 17일에 고향인 강서군에서 평양으로 돌아와 11월 3일에는 민주당을 조직했으나 북한 공산당은 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에 민주당의 외장직을 물러나고 감금되었다. 어떤 젊은 분들은 감금 중에 있는 조만식 장로에게 비밀리 접촉하여 북한 탈출을 하시라고 진언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는 끝까지 북한의 양떼를 위하여 있겠다고 하며 나 혼자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했다.

1977년 1월 25일은 그의 94회 생일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이들은 공산당에게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참말인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다.

환영!

제3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때: 1977년 6월 20일~24일

곳: 충현교회당

월간 충현

문선명에 의한 순국산품 종교

윤 형 철 전도사

(총신연구원 3년·중등부지도)

통일교의 본명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행협회」(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로서 그 의미는 세계의 모든 주의(ism)·사상·정치·종교를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선명(文鮮明)에 의하여 20년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종교로서, 현재 일본·미국·영국·프랑스·자유중국 등에 수출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순국산품이다.

1. 성경관

첫째,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한다. 통일교는 시대를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成約時代)로 구분하고 현재는 이 성약시대에 해당된다고 한다. 성약시대에는 신구약성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약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다 못하시고 돌아가셨던 영원한 비밀의 진리를 문선명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며, 또 성경의 문자 뒤에 감추어진 숨은 진리를 현대인에게 새롭게 해설한 것이요 천국건설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성경의 영감설을 부정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감동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세째는 성경의 통일성을 부정한다. 신구약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이 없는 저자들의 단편적 사상과 조화의 총화라고 본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 일점일획도 가감할 수가 없다(계 22:18-19).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성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적 통일성이 있다. 성경이 저자와 기록시대와 기록장소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일성이 있는 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2. 신 관

통일교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 능력과 그 신성을 특별 계시인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와 인생에 나타난 자연계로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양성(陽性)의 2성(二性) 성상(性相)에 의한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유지되는데, 삼라만상의 첫째 원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2성 성상의 존재라고 한다. 또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만물은 하나님의 2성 성상이 상징적 실체로 분리된 실체대상(實體對象)이며, 인간은 그것이 형상적인 실체

로서 분리된 실체대상이므로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성상(性相)과 형상(形狀)의 관계와 같이 안과 밖,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가로와 세로 등의 2성 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동양철학의 역학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성경을 동양의 상대적 사상에 부합시킨 결과이다.

3. 타락관

통일교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와와 범죄를 타락한 천사와의 혈연(성적) 관계로 해석한다. 인간은 먼저 타락한 천사와 하와와의 혈연관계로 타락되었는데 이것이 영적 타락이고, 다음에는 하와와 아담과의 혈연관계로 타락되었는데 이것이 육적 타락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적 타락의 구원뿐이며, 육적 타락은 생명나무인 문선명과 혈연관계의 방도를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고 한다.

4. 복귀원리론

통일교의 이상은 인류시조의 타락으로 시작된 죄악 세계를 복귀하여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 복귀원리는 탕감조건에 의한 속죄구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없고 인간의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이제 재림의 그리스도(문선명)가 복귀원리를 성취하실 분으로서 그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그 원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과 거룩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원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속죄도 구주를 믿는 일도, 기도도 필요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재림론

통일교는 재림주 역시 초림시의 주님처럼 여인의 몸에서 나시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무명의 청년으로 나타나시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여 이단자로 여김을 받으시고, 가장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기독교자들에게 박해와 비난과 조소를 받으시다가 최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신다고 말하면서 문선명을 재림주로 말하고 있다.

재림시기에 대해 말하기를 지금은 말세이므로 재림의 예수는 이 때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재림한 것으로 본다. 재림장소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구원의 활동은 동방에서 시작될 것을 예언하였으므로(계 7:2) 재림주 그리스도는 동방의 반도(한국)문명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충만한 은혜 속에

인도네시아

1. 자카르타시 거주 한국부인회 회원들을 선교관에 초대하여 예배와 코이노니아를 가짐.
2. 1977년도 제 1회 성찬식을 지난 3월에 거행하였는데 수찬자는 19명이었음.
3. 한·인 부활절 합동예배를 4월 10일 새벽에 선교관에서 드림. 인도네시아 3개 교단 교인들과 자카르타 거주 전 한국인이 초대됨.
4. 어린이주일날을 맞아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53명 어린이들에게 축복기도드렸음.
5.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확대회의가 5월 13일 보르부들호텔에서 각교단 및 선교부 대표가 모인 가운데 개최됨. 이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의 일환으로 현지 사역자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함.
6. 오는 7월 3일로 성립, 제 5주년을 맞는 자카르타 한인교회는 기념사업으로 마이크로버스 한 대를 구입키로 하고 기도중에 있음. 본 선교부가 사용중인 낡은 지프차는 1966년 제작품으로 많이 노후하여 유류비 등 관리비가 훨씬 더 들어 비경제적이기 때문임.

홍콩

지난 7개월 동안 부족한 중이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1. 홍콩 한인교회 전도부 사업으로 본국 사관학교 전도사업을 위해 월 200달러(한화 2만원)를 지불하기로 제직회에서 결정함.
2. 중공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한국인 어부 12명을 교회에서 초대하여 식사대접 및 전도함(전원 불신자임).
3. 이곳 홍콩한인교회는 이제 복잡했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바야흐로 충만한 은혜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으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계의 진복인 홍콩에서 주로 활개치며 활동하는 제통은 엔·시·시(NCC)측인데 이에 비해 우리 보수진영의 선교활동은 미약한 편임. 따라서 우리 중헌교회의 사명이 막중한을 느낌.
5.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선교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영어와 아울러 중국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어(관동어) 습득을 시작하고 있음.

중동 지역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선교의 터전이 확보되어 감

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대학 입학 문제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로부터 정식입학통지를 받았음. 학교 등록만 하게 되면 학생비자는 자동으로 받게 되고 학생비자를 받으면 우선 정착관계는 해결될 것임.

2. 한인 연합교회 문제

4월 둘째 주일(부활절)을 기하여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를 시작하였음. 카이로에는 100명 가까운 교포가 살고 있음. 이곳 대사관에서 두 가정이 친상(親喪)을 당하여 특별 추도예배를 드렸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더 한층 부흥된 것 같음.

3. 이집트 내의 선교활동

이집트 정부로부터 정식 선교사로 인정을 받아야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집트 교회의 스폰서를 꼭 얻어야 함. 서류제출은 했는데 5월 중에나 결정이 난다고 함.

4. 이집트 내의 기독교 실태

이집트는 기독교인과 모슬렘이 직접 대치하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으로 95%가 회교도이고 5%가 기독교인임(기독교측에서는 10%라 주장함). 회교교가 국교이고 정부는 회교교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기독교를 공인하고는 있음. 정부 방침이 전 국민의 모슬렘화로 정치적 유익을 도모하려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흥시키려고 입국한 선교사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공인된 교회 내에서만 기독교의 종교활동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임.

서 독

1. 평신도선교사 박용삼 집사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등록을 마치고 수강하기 시작했음.
2. 독일 선교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음. 즉 독일은 신교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선교사로 일하려면 독일정부교회의 초청을 받은 더블류·시·시(WCC)에 가입되어 있는 자유주의 계통 교회선교사들만이 인정되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는 아주 이단취급을 하려고 함.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칼빈주의 계통의 교회가 상당수 있는데, 그 중 유력한 분이 이집트선교회 책임자이신 트뢰거 목사(이연호 선교사의 스폰서십을 위해 이집트선교회에 추천장까지 써주신 고마우신 분임)이심. 그분은 저에게 독일어 문제, 거처 문제등 여러가지 것을 친절하게 물어주고 있음.
3. 이곳 독일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다 꼭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의 센터로 삼으려고 하니 계속 기도 바랍. 트뢰거 목사, 김영한 박사, 평신도선교사 박용삼 집사 등 동역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음.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5월중 결혼)

- 이기태군과 이명심양 / 2일 충현교회
- 이재길군 / 이창선장모 · 김연옥원사 아들 — 3일 충현교회
- 안의경군 / 주교교사 — 5일 충현교회
- 김혜영양 / 7일 영빈관
- 박동철군과 이재길양 / 10일 충현교회
- 장태석군 / 하소담원사 아들 — 17일 충현교회
- 김춘희양 / 제일성가대원 — 17일 충현교회
- 장 철군과 한은주양 / 천호구역 — 18일 충현교회
- 강옥남양 / 삼성구역 — 20일 충현교회
- 박우일군 / 고남굴집사 아들 — 21일 조선호텔
- 홍성애양 / 임경희집사 장녀 — 21일 고려예식장
- 박상한군 / 수유리구역 — 25일 기독교대화관
- 정삼득군과 이미희양 / 충무로구역 — 28일 퇴계로 행복예식장

위로드립니다(5월중 별세)

- 김윤진집사 / 삼성구역 — 26일(4월)
- 한씨 / 김옥양선생 조모 — 5일
- 임종숙여사 / 화곡구역 — 8일
- 진용훈씨 / 최경애집사 부군 — 13일
- 최익수씨 / 김은애원사 시부 — 17일
- 이연순여사 / 창동구역 — 25일
- 최용달씨 — 27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 6월은 총동원전도의 달입니다. 많은 결실을 가져 오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 기도원 신축과 새성전 건축을 위해 간구합니다. 장소문제로 주일학교 교육은 물론 교회의 모든 행사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 정갈의 고장 인도네시아는 열대성 기후로 건강을 해쳐지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선교사업은 물론 더위와도 싸워야 되는 서만수 선교사 내외를 위해 기도합시다.
- 혼잡한 국제도시 홍콩에서 한인교회를 중심하고 중공대륙을 바라보며 선교사업을 펴고 있는 홍종만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 중동지역 선교를 위해 현재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머물며 역경 속에서 애쓰는 이연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서독의 육호기 선교사와 박용삼 평신도선교사는 한인교회를 개척중이며 국제도시 프랑크푸르트에 선교관 마련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해 기도합시다.
- 일본의 유명세 평신도선교사와 아르헨티나의 신동수 평신도선교사의 선교사업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로부터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 여러가지로 애쓰는 중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역장 노트①⑦

신앙지도의 지침(9)

백 성 룡 목사
(부목사 · 구역관할회장)

ㄴ. 사랑과 화목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힘쓸 일이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랑과 화목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더욱 가정에서 그리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 가정의 질서가 무슨 법조문(가훈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있고 영향력있는 어느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하여 유지될 수는 없다.

가정에 있어서 사랑의 질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가훈이 있더라도 사랑이 결핍되면 생명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고 서로 화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사랑의 충실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랑과 화목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늘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치열한 생활경쟁 속에서 갈등하며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다 풀어지겠끔 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식구들 각자가 가정에서 지니고 있던 그 애정과 화평스러운 마음가짐을 직장이나 학원에까지 연장시켜 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사회악에서 보호하고 가정은 사회를 향하여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급처가 될 것이다.

㉔ 윤택한 생활로 이끄는 지혜(잠22:1-4)을 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뜻한다.

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기를 배우게 한다(잠30:8,9)

② 물질은 바로 쓰기를 배워야 한다(잠3:9,10; 11:25)

③ 수고의 가치를 알고 부지런해야 한다(살후3:8; 잠12:27; 전3:13)

④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㉕ 가정의 모든 행사의 주도권(결혼식 · 장례식 · 기타행사들)은

① 어른으로 주관하게 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부모님 · 남편 · 형 등의 차서를 따를 것.

② 비신앙적인 행사에는 불참해야 한다(제사와 같은 행사).

③ 어떤 행사든지 그 형식보다 정신적 신앙적 의미에 더 치중해야 한다.

이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관하여 말했다. 살펴보면 가정은 교회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직결된 하나님의 자녀 또는 양으로 그 식구를 구성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뜻에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천국의 지소가 되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소박한 삶

양 영 숙

(고등부 3년)

모든 이들 마음에는 각자의 바램이 있다. 그 바램이 있기에 오늘도 구겨지지 아니하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것 같다. 비록 그것이 작고 유치하다 하여도 남들이 절대로 비웃지 못하는 것이며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일 것이다. 그러한 꿈을 갖지 못하고는, 소망있는 안정감 속에서 선을 추구할 수 없다.

그 소박한 꿈은 매일의 생활진짜가 되어 자신을 아름답게 간직하게 할 뿐 아니라, 이웃과 친구에게까지 큰 기쁨을 공유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언어에다 매력을 느낀 거창한 꿈은 위선과 허진감만이 남게 되어 스스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시간의 부패자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온 환경과 상황을 굴절된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어떠한 것이라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뜨거운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좌표와 꿈이 설계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박한 꿈을 갖자는 것이며 그 열매로써 참된 생활을 맺자는 것이다. 그 생활에는 반드시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수반된다. 남을 절대로 미워하지 아니하며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고, 남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나의 것보다는 친구의 소원성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알차게 구축하되 절대로 시끄럽지 아니하게 넓고 깊은 호수와도 같이 작은 낙하물에 대하여는 파문을 일으킬지언정 곧 속으로 흡수하여서 또 다시 잔잔한 표면을 가꿀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엔 진실이 깃들 여유가 있으며 지극히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진실과 지혜는 주님이 주신 자연을 보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하루에 한번씩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자연을 친구로 삼는 사람들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보아 왔다. 또한 이러한 열매 뒤에 탄방울과 눈물이 필요하였듯이 그 앞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기다린다. 그럴 때에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와 준비되어지고 자연히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도 이뤄지게 된다.

오늘도 나는 아침부터 말 한마디에 발걸음 하나 하나에 미소속에 주님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소박한 삶을 찾아 구석구석 다니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시끄럽고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소박한 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린이와 어른

정 관 웅

(대학부 회원)

「어른들에게 <창물에는 제라리움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살고 있는 고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분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내지를 못한다. <1억원짜리 집을 보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 <야, 참 훌륭하구나!>하고 부르짖는다」

어린 왕자를 읽고 특히 감명 깊은 귀절이었다. 어린이와 어른의 세계는 무엇이 다를까?

어린이의 삶은 자유스러운 것 같고, 어른의 삶은 엄매인 것 같다. 어린이는 좋을 때 웃고 싫으면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른은 싫어도 웃는 척하며 원하지 않는 것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하지 못해 한다.

어린이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어른은 의문을 갖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어린이는 현실을 의식하지 않지만, 어른은 꿈(理想)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가끔 어린이들의 병정놀이를 보고 느끼는 점은 그들이 결코 병정놀이를 하나의 장난이나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현실의 병정들인 양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이 병정놀이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가정으로서 먼저 생각한다.

사람은 남을 의식할 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

어린이는 진실하게 행동하지만 어른은 원리원칙만을 앞세우는 사실의 편에 선다. 어린이는 뜻밖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나 어른은 정상적인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는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행동하나, 어른은 언제나 불가피성을 앞세우곤 한다. 어린이는 사물의 수(數)보다는 아름다움을 구하나, 어른은 수(數)가 가치척도의 기준이다. 인간의 지능까지도 「I.Q」라는 숫자로 측정해내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수의 의식이 없으므로 자연히 빈부의 의식도 없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가고 있다. 교회의 헌금조차 숫자로 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와 같이 알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어린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속이 일체가 되어 있으나 어른은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고 있다.

교회가 어린이들로 꼭 찼으면 좋겠다. 어른의 부조리가 무서운 것보다 어린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무섭다. 헌금이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숫자로 판단되는 것이 기분 나쁘다. 주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싫다. 어린이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한다.

의사들이 가진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박 행 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월 27일 주일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파송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새롭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작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28일 새벽에 떠나는 길에 나와 주셔서 기도과 격려를 해주신 임태주 선생님과 한정미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곳을 도착하자 곧 기도실에 들어가 알날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이어 예배실에서 인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에 참가하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내용이 주님 중심임을 보고 이와같은 병원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1일 0시부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3주는 소아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였지만 어쩌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후에는 환자들 가운데 어려운 환자들의 질환명을 적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전도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뇌막염에 걸려 식물인간이 되어 의식없이 2주 이상을 지내다가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면서 어떻게 하든 좋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전에 예수를 믿다가 이제는 신앙에서 떠나 있던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였으며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죽어 가는 어린이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날 그 어린이는 퇴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그 집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입니다.

또 한 여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알레르기로 인하여 팔과 다리에 반점들이 나타나고 관절염이 있고 장출혈이 심한 어린이였습니다. 복통으로 인하여 병실이 떠나가도록 울어서 진통제로 여러 번 가라앉혔으나 그 효과가 끝나면 또 아프다고 울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안타까와하시고 의사들의 심정도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문득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X-ray) 기사인 장로님께서 그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낫는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어린이 아버지지는 그저 침대 곁에서 중얼중얼하면서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더니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는 전혀 통증이 없어졌고 다른 증세도 곧 좋아졌습니다. 선물로 성경책 한 권을 드리고 주님을 계속 믿기로 약

속하였습니다.

또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얼굴과 간지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가지로 치료하였으나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생명이 위험하게 되어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 부모에게 가망이 없다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어린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했더니 나오면 회복되는 대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였던 말이 생각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진단과 치료방향이 수정되었고 그는 곧 건강하게 되어 퇴원하였습니다.

그밖의 여러 사람들이 잃었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도 하였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병든 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전 직원이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를 감당하고 환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토요일에는 시·시·시(CCC)의 열단계 교제(ten step)를 중심으로 그룹별 성경토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순순하고 깊은 신앙에 놀랐습니다. 주일 아침과 수요일 저녁에는 환자들과 같이 예배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과 목요일에는 병원직원 성가대원들이 각 병동에서 찬양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나 간단한 모임에서도 기도로 시작하며, 의사에게 그렇게 흔한 술과 담배도 극히 절제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원목실에는 목사 한분, 전도사 세분이 있고 사회사업과 통에서도 복음전도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복음적인 교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려 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합함을 체현하신 주님 사랑을 가지고 다음 한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주안에서 힘쓰겠습니다. 땅끝까지의 장학금과 선교회비를 동봉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녕히 계세요.

※ 필자 박행렬 선생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꼭 자라 배학부 교사로 있었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주예수병원의 인턴으로 발령받고 이곳을 떠났다. 그는 또한 우리교회 「땅끝까지의」의 회원이다. 그래서 「땅끝까지의」에서는 그를 직장선교사로 파송하였고 본 원고는 그 보고서이다.

때가 아직 낮이매 힘써 일하라

—올 여름행사 6월 20일 시작되는

농어촌교역자훈련을 선두로 개막—



올해도 예년과 같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우리교회의 여러가지 여름행사가 교회 내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성경학원의 「제3회 농어촌교회 교역자초청훈련」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이어서 주일학교 각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가 개최되며 끝으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의 9개 지역에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번 여름행사를 위하여는 연인원 3,150여명이 교육과 훈련 담당자로 또는 피교육자로 참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예산만도 800여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례와 같이 올해도 여름행사는 교육·훈련·전도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과 군중사병훈련 등은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에 대한 가치성과 필요성의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이같은 갖가지 여름행사를 위하여 주무 각 기관에서는 대부분 일년전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모든 행사가 보다 알차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또한 올 여름행사를 위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기도하며 참출려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찬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교회는 부탁하고 있다.

총현교회 1977년 여름행사 계획표

1977년 6월 12일

기 관 명	행 사 명	행사기간	행 사 장 소	참가인원		예 산	비고
				교육자	피교육자		
1. 성경학원	제3회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	6.20—6.24	총현교회당	15	70	573,000	
2. 전도위원회	제3회 군중사병훈련	7. 6—7. 9	제1사단 휴양소	10	70	250,000	
3. 성경학원	농어촌 파송전도대 훈련	7.11—7.13	총현교회당	10	50	96,000	
4. 성경학원	제6회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훈련	7.14—7.18	총현교회당	15	140	546,000	
5. 대학부	제8회 하기수양회	7.18—7.22	강원도 삼척군 「예수원」	6	100	919,750	
6. 청년부	제7회 하기수양회	7.18—7.20	경기도 임석 「태화수양관」	5	124	518,000	
7. 새신자부	제24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7.25—7.28	총현교회당	24	100	103,000	
8. 초등부	제24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7.25—7.28	총현교회당	50	380	32,2500	
9. 중등부	제15회 하기수양회	7.26—7.29	경기도 수원시 「서울농대」	30	300	1,289,750	
10. 유치부	제24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8. 2—8. 5	총현교회당	41	250	220,000	
11. 유년부	제24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8. 2—8. 5	총현교회당	60	380	346,500	
12. 초등부	제5회 여름 수양회(5학년)	8. 2—8. 5	경기도 가평 「금성국민학교」	25	120	637,500	
13. 고등부	제15회 하기수양회	8. 2—8. 5	경기도 수원시 「서울농대」	28	200	975,750	
14. 전도위원회	제6회 농어촌전도대 파송	8.8—8.12	경기도, 강원도 9개지역	50		300,000	
15. 영아부	제3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8.17—8.18	총현교회당	35	170	116,000	
16. 노년부	제2회 하기수양회	8.22—8.23	총현교회당	17	95	147,500	
17. 당 회	제5회 장로수양회	미 정	미 정	5	28	200,000	
18. 성가부	제2회 제일성가대 수양회	미 정	미 정	2	50	150,000	
19. 성가부	제1회 제이성가대 수양회	미 정	미 정	2	40	150,000	
20. 성가부	제2회 여성성가대 수양회	미 정	미 정	2	60	150,000	
합 계				432	2,727	8,074,250	

전도위원회 군중사병 훈련

—전군신자화를 위한
군전도활동의 하나로—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석주 장로)는 오는 7월 6일부터 육군 제1사단 군중사령부의 협조를 얻어 9일까지 사단휴양소에서 70여명의 군중사병들에 대한 군중업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절대 부족한 군부대 내의 유능한 복음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3년 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이 훈련은 내무반의 사병들에게 직접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군중전도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된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올해 실시할 훈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전도법·실교법·군청년심리·상담원리·군중업무·내무반에배지도·신앙전력화방안 등이며 기독교영화도 상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사로는 우리교회의 정기성 목사, 김하진 목사, 이승근 전도사와 사단 군중참모 이복진 목사 등이다.

기도원 건축공사 급진전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지난 봄에 시작된 충현기도원 건축공사가 그간 여러가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으나 임야 2,300여명의 정지작업을 무사히 끝내고 지난 5월 31일 당회에 의해 도급공사자로 덕화공업주식회사(대표 김준훈)가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자와의 계약으로는 오는 11월 15일에 완공시키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최소한 1978년 1월에 실시될 주일학교 각부의 동기수양의 장소로 사용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끝을 맺으려면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겠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여 줄 것을 건축위원회(위원장 김기정 장로)는 부탁하고 있다.

노인들 위로하며 전도해

—노년부 교사들, 시립양로원 방문하여—
주교 노년부(부장 우성원 장로) 교사 15명은 지난

5월 30일 오후 시내 도봉구 상계동에 있는 시립양로원을 방문하여 94명의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고 또 전도도 하였다. 이 날 순서는 먼저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노년부 지도교역자 김재창 목사의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야만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다(요 3:16)」는 요지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서 노년부에서 준비해간 다과를 나누며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예수 믿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예수 천당·영생복락」이라는 글을 새긴 타운을 한장씩 선물로 나눠주었다. 의지할 가정이 없는 무의탁 노인들을 위로하며 아울러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시작하였다고 말하는 지도교역자 김재창 목사는 모든 노인들을 더욱 따뜻하게 위로하며 보살펴야겠다고 역설하였다.

정홍식 집사 도서기증

—신학서적 다수를 도서실에—

우리교회 정홍식 집사(대학부 교사)가 지난 6월 5일 원서 12권과 기타 도서 65권 등 모두 77권의 도서를 교회 도서실에 기증하였다. 원서로 된 칼빈의 기독교강요 상하권과 히브리서사건 등 대부분 신학(神學)관계 서적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좀더 신학에 대하여 공부할 하기 위하여 그간 준비하여 두었던 책들로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도서실에 두고 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용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같이 도서를 기증하였다고 한다.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수도노회 주교연 주최로

6월 27일부터 충현교회서—

수도노회주일학교연합회(회장 김종석 장로)가 주최하는 「제6회 여름성경학교1교사 및 수양회 지도자 강습회」가 오는 6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7월 2일(토) 오후 5시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배우고 따를 성경말씀」이라는 주제로 실시될 이번 강습회는 유년부·초등부 지도 교사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등부·고등부·대학부 지도 교사들을 위한 교과내용도 충실하게 짜여져 있는데 회비는 1인당 500원이며 접수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한다.

■ 조 청 ■

제 6회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훈련

- ◇ 일시: 1977년 7월 14일—18일
- ◇ 장소: 충현교회당
- ◇ 대상: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140명
- ◇ 내용: 강의, 부흥회, 주교전학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 모 집 ■

농어촌 파송 전도대원

- ◇ 자격: 충현교회 남·여 레교인으로 전도에 사명감 있는 20세~50세 된 자
- ◇ 모집인원: 50명
- ◇ 모집마감: 1977년 6월 26일까지
- ◇ 파송예정일: 1977년 8월 8일—12일
- ※ 문의처—전도위원회(29-7726)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토막소식

*...교회는 지난 6월 10일(금) 오후 10시부터 1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김재창 목사와 김하진 목사의 인도로 6월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지구 민족성회」를 인도하며 6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북한선교회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따라서 6월 초로 계획하였던 해외여행 출반이 8월 하순으로 변경되었다.

*...당회는 지난 5월 31일자로 제 일성가대 지휘자 김정일 집사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구역권찰회(회장 백성룡 목사)는 지난 5월 31일자로 당회의 인준을 받아 삼성구역(제3지구) 권찰로서 최영선(여, 35세) 김혜옥(여, 53세) 조기형(여, 50세)을 보선하였다.

*...구역권찰회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과 8월에는 구역예배와 구역권찰훈련을 쉬며 9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상우 목사)는 5월 22일 오후 유년부실에서 교육위원 자질향상을 위한 특강을 열었다. 이날 교육위원 15명과 주교사 80명등 모두 95명이 참석하였는데 「현대기독교 교육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김득룡 목사(홍신대 교수)가 강의했다.

*...총현출판위원회(위원장 송순일 장로)는 이성근 목사를 출판위원으로 추가 임명하였다.

*...건축위원회(위원장 김기정 장로)는 5월 31일자로 기술위원회 회관 신생(남, 36세) 구매위원에 노광현 집사(남, 38세) 자재감독에 장봉순 집사(남, 46세) 경리에 유은숙(여, 23세)을 각각 임명하였다.

*...유년부는 6월 26일 유년부실에서 성경퀴즈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내용은 야코브서이다.

*...초등부 어린이회(지도/김정훈·안신덕)는 6월 5일(토) 유년부실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회장에 김기홍(남, 6학년) 어린이가 선출되었다. 또 6월 11일(토)에는 홍신대학에서 어린이회 친교회도 열었다.

*...중등부 면회총회가 6월 19

일 오후 중등부실에서 열린다. 또 25일(토)에는 유년부실에서 찬송가경연대회도 연다.

*...고등부 면회총회가 6월 22일(수)부터 24일까지 고등부 면회실에서 열린다.

*...고등부 목요회(회장/정필길) 성가경연대회가 5월 29일 고등부실에서 열렸는데 금관여고목요회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산업전도교육부는 7월 17일

조별친교회를 연다고 하며, 7월 17일에는 조장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대학부 면회총회가 지난 5월 29일 오후 대학부실에서 열렸다. 회장에는 김경일, 부회장에는 유순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청년부는 7월 10일 헌신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강사는 이성근 목사(총현출판위원회 위원·새신자부 지도)이다.

우리의 매일기도

—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시대가 우리의 기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해외의 이방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 기도합시다. • 매일 기도합시다. • 우리는 매일 기도합시다.

☐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일 기도합시다.

☐ 새 성전건축을 위해 매일 기도합시다.

☐ 총현기도원 건축을 위해 매일 기도합시다.

☐ 해외 선교를 위해 매일 기도합시다.

☐ 여름행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 5. 1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주 일	I II III IV	107,410
예 배	주 일 낮	178	325	503	예 배	실 질 감 생 경 건 등	249,325
		394	950	1,344			171,790
		275	572	847			46,172
		86	197	283			2,512,181
주 일 저녁	228	407	635	주 일	조 정 사 일 조 측 산	592,800	
	132	366	498			182,700	
	25	35	60			39,000	
	30	48	78			265,000	
새 신 자	69	63	132	배	새 생 신 아 자 부 처 년 등 중 고	864,455	
	81	101	182			30,000	
	145	151	296			1,245	
	133	170	303			16,265	
영 유 초 중 고 대 청 장 노 산 업 교 육 부	185	147	332	주 일	새 생 신 아 자 부 처 년 등 중 고	30,990	
	161	161	322			18,800	
	74	72	146			19,125	
	43	81	124			24,455	
영 유 초 중 고 대 청 장 노 산 업 교 육 부	30	237	267	주 일	새 생 신 아 자 부 처 년 등 중 고	44,260	
	22	64	86			5,215,973	
	9	31	40				
	2,300	4,178	6,487				
계					계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인
2,602	2,361/3,636	1,365/2,513	302/238	223/335	471/550

동쪽 마지막 선교의 요람, 나의 조국

- ☐...고요한 밤, 먼 곳 개짖는 소리가 들리고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소리가 들...☐
☐...려웁니다. 눈물겹도록 그리워지는 고국의 산천.....조그만 나의 조국을 하...☐
☐...나눔이 지켜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동쪽 마지막 선교의 요람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

몇번 달월 올린다 하면서 오늘에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간충현을 정독하면서 충현재단을 머리에 그리게 되고 또 자라난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시절을 회상하면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 더우기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기에 애쓰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감동되어 여러 번 소식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진주같은 글들입니다. 순수한 한국교회의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격스럽고 이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설레입니다. 월간충현 하나만으로 해외선교의 큰 역할을 하신다고 믿는 바이온데 해외의 충현식구뿐만 아니라 해외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꼭 보내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교포교회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이중 한 사람으로서 월간충현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 소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줄 알아서 이 일을 중시해서 계획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활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 있는 교포들은 사실상 영적으로 기아적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의 영적 부흥운동의 영향 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미국의 속깊이 일고 있는 영적 감정,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런 성령의 운동 속에도 있지 아니한 미국의 물질적 문명의 껍질을 타고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실의하고, 오만하고, 굳어지고, 반항하고, 향락과 방탕 이런 것들 속에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 바로 여기에 선교의 전초지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선교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면 뵙고 이 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전도자 되기 위해 맹훈련을 받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의 조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위하여 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동쪽 마지막 선교의 요람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고요한 밤에 먼 곳 개짖는 소리가 들리고 기차의 레일 위를 달리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고국의 산천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눈물겹도록... 그리고 친구들이 생각날 때면 더욱 견디기 어려운 밤입니다.

이 몸이 최대 효과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성령님에게 사로잡힌바 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례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연락하고 또 글로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현교회의 귀한 믿음의 동지들에게 꼭 문안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 6월 미국에서 홍 정 일 올림

<추이> 우표값이라도 충당하시도록 50달러를 동봉합니다.

주소 : Mr. Jung Il Hong 2427 River Rd. Corona, California 91720 U.S.A.

☐ 새 성전 건축 위해 바칩니다

주교 교사 조성행 선생 임야 42만평 헌납



현재 주교 사립전도교육부에서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조성행 선생(사진·남·40세)이 지난 6월 7일자로 논현동에 신축될 새 성전건축을 위해 세달라고 임야 42만평을 교회 앞에 헌납하였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임야는 조 선생이 어린 자녀들의 알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것이라고 한다. 조 선생이 이처럼 마련한 땅을 교회에 헌

납하기로 결심한 것은 하루속히 새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하며 자녀들의 알날을 생각할 때 열려도 되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없이 기쁘다고 한다. 조 선생은 현재 동대문상가에서 실·단추 등을 취급하는 상점(화성상회)을 경영하고 있으며, 부인 권오순씨와의 슬하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성만·성철 두 아들이 있다.

○...당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
기 자 석 시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
시겠습니까? 환란과 회의와 오해는 바로 대화의 결
핍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대화는 교제의 뛰어난 도구"라는 말처럼
교제의 수단이 대화가 된다. 서로가 갖고 있는 사고를 교통하는 가운
데 환란과 회의와 오해가 풀리는 것이다. 즉 대화란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사상의 배출구일 뿐 아니라 성품의 출구"기 때문에 서로를 이
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인생을 살아가
는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는 말이 나온 듯하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과
의 대화가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
는 좋은 수단이 된다. 특히 청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 대화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받고 이해해 줄 때 청년들의 이상은 펼쳐지고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화의 광장은 청년지도를 위한 필
수적인 기구임을 재인식하면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관
심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싶다. 모든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이웃 형제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이미 인식
했던 것들인 듯 싶다. <제>

○...현대를 호소하며 사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할때
늘 크리스찬의 관점을 갖는게 중요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줄 안다.
즉 어떤 사건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결
론을 내리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대량전달이라고 하면
그곳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을 터인데 그 중
하나에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생각해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연에
계에서는 연예인교회를 세우고 체육계에서는 체육인교회를 세워 현대
인들의 생활에 크게 밀착되어 있는 연예오락과 스포츠를 통해 그리스
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무대에서 또 그라운드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들을 주시하는 사람
들이 얼마만한 영향을 받으며 또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모른다. 정치인도 그들에 못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오랫만에 치루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지켜 보았다. 정말로 그들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
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오>

○...푸른 하늘 아래에서 푸른 시내와 푸른 일사귀를 바라본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움으로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입술이
무더기기에(?) 내 자신이 알고 있는 형용사가 부족하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에 그저 경탄하고 말았다. 그
것도 손수 움직이신 것이 아닌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가? 주일학
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예화가 생각난다.

○...알도 못보는 외롭고 가난한 노인이 홀로 지내고 있었다. 남에게
구걸하며 지내는 그것이지만 항상 주님께 감사한 생활을 잊지 않았다.
눈보라가 몹시도 치면 주일 저녁(?) 손도 발도 얼어버린 그 노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과 찬송을 부르며 꼬
불꼬불한 산길을 더듬으며 교회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가던 노인은 짐
승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옹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원망과 불
평은 커녕 "아이쿠, 하나님 아버지, 가암사합니다"하며 애를 써서 옹
덩이 밖으로 나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던 나와
나의 소꿉 친구들이 눈앞에 선하다. 지금 생각하니 우리가 어떻게 거
듭나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눈이 멀어 알도 못보는 장님이면서도. 원
망과 불평이란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두 눈을 멀찌고 드고 이 아
름다운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오히려 가증한 행동으로 부
끄러운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푸른 하늘 아래에서 푸
른 시내와 푸른 일사귀를 바라보며 무언의 자문자답으로 주님의 넓고
깊으신 은혜에 마냥 도취되고 싶다. <숙>

열전하고 나서

*...총회신학대학 교수 김득룡목
사의 특강내용을 전부 정리하여 실
을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교회교육의 관계자는 물론 일반 평
신도들도 모두 일독하여 현재 기
독교교육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기
독교교육은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
어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
기가 왔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기독교교육을 교회로 떠맡겨야 하
는 때가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
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땅끝까지」의 회원이던 박
행렬씨가 직장관계로 전주에수병원
에 근무하면서 보내온 편지를 공개
한다. 6월의 총동원전도의 달을
맞으며 우리 생활 중에서 전도하는
법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고 생각한다.

*...월간총회에 대하여 내부에서
는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는 이
야기를 우리는 수차 해왔다. 마치
월간총회지가 일반기성잡지나 전문
적인 잡지와 같은 조직과 기구 또
한 재정적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
는 줄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 사람
들이 많이 있는 듯하며 일면으로
무척 섭식하고 또한 대견하기도 하
다. 비평과 비판에 앞서 이해와 관
심을 가지고 대해보자. <형수>

표지 명설

총동원전도의 달을 맞았다. 전도
에 특정한 날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마는 우리는 특별히 6·25가 들어
있는 6월을 총동원전도의 달로 정
했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일기 시
작한 북한선교의 열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다정하며 밀지않은 후일에 우
리는 이복의 그 어느 도시에 이처
럼 뛰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칠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월간「총현」6월호 통권 제42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송순일

주 간/정관일

편집국장/조선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6월 19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귀순음사위로예배가 북한선교회(이사장 김창인목사) 주최로 본교회에서 모였다. 이 자리에는 귀순음사들과 그들의 가족 300여명 참석. 회원들의 뜨거운 영접을 받았다.



◇김영삼집사의 장로장립식이 지난 5월17일 축하객이 분당을 거의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수직전의 그의 모습! 정치가로 나라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이제 장로로서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지난 5월 24일에는 육군 제2382부대 전중 세례식에서 군인 667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김창인 목사의 설교와 동행한 여성성가대의 찬양(사진)이 있었다.



◇여전도회 지교회인 성현교회 기공예배가 지난 5월 23일 임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회장 김동재권사(왼쪽)와 임원들이 예배후 첫 삼을 뜨고 있다.



◇지난 5월22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특선으로 정선예교우선교단이 은구슬 굴리듯 고운 목소리로 여러곡의 성가를 불러주었다. 이들은 정선여고 노래선교단 출신들.



◇대학부의 자람인 향상음악회(지휘 임정배선생)가 지난 6월 4일(토) 대예배실에서 가져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다. 발표곡은 비발디의 글로리아.

실로암
못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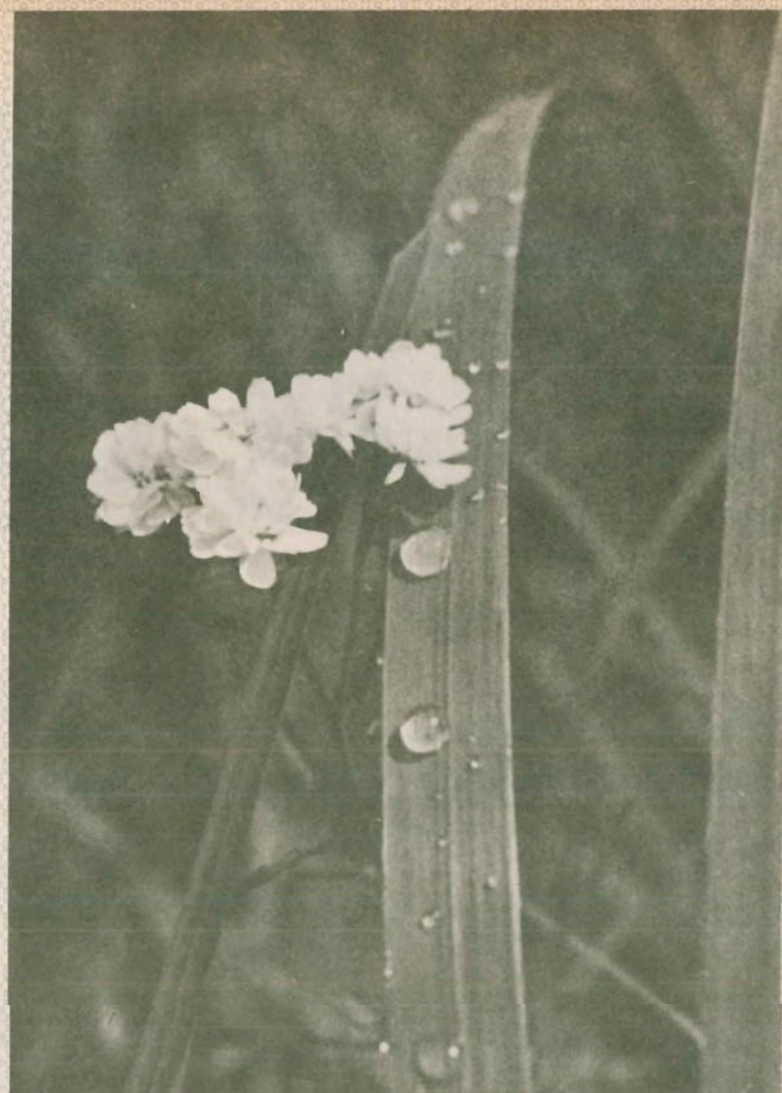


사진 / 박 매리 다니엘 차

사랑의 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 - 7 절